

문제 1

1. 일단 1문단의 (나)의 단어군을 ‘언어규범’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 좋습니다, 발문상 (가-1~2)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두 제시문이 ‘언어규범’에 대해 논하므로 이는 발문을 정확히 이해한 답안 서술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문단에서 가-1의 대응은 있으나, 가-2의 대응이 없어 대응점이 부족한 아쉬움이 발생합니다.

2. “이러한 단어들은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좋은 비교기준이나 1문단에서 한 것처럼 언어규범의 파괴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빠져, 이는 큰 아쉬움입니다.

3. 또한 1번지적과 마찬가지로 가-2에 대한 대응뿐이라 총 4가지의 대응이 서술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대응만 존재해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문제 2

1. “제시문 (다)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규범이 문화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라)의 1999년 A국가와 B국가의 사법시험의 여성 지원 비율의 차이가 국가마다 여성에 대한 사회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만, 왜 (다)에 대한 서술을 한문장으로 끝냈는지 의문입니다. (다)의 국가마다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 설명해야 뒤에 할 대응에서 A,B국과 3국가를 구체적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제시문 (다)에서의 미국과 같이 구성원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사회 규범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A국가의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A국가의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1번에서 지적한대로 앞에서 제시문 (다)의 국가들에 대한 설명없이 갑자기 대응이 이루어져 논리성이 부족하며,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예시도 사회규범의 변화로 볼 수 있어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미국과 네덜란드가 방향성이 달라 미국이 네덜란드보다는 A국에 적합하다고 대응해주셨으면 더 완벽이구요.

3. “한편, B국가의 사법 시험을 지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1999년과 2008년이 동일하게 38%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B국가가 약 10년간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999년에는 비교적 A국가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A국가와 동일한 남녀 평등 정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B국가 구성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지속된다면 성에 대한 규범이 변하지 않아서 미래에는 A국가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대응됐어야 되는데 구체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습니다.